



프랑스 파리의 폼피두센터 내부. 이 센터는 1977년 인근 영세민 거주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프랑스 리옹의 대표적인 건축가 토니 가르니에의 주택단지. 당시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이 단지는 1930년대 지어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8> 유럽편 '도시와 문화시설' ② <독일·프랑스>

## 도시 역사 간직한 건축물 '랜드마크'로 키워

유럽 도시의 특징은 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구 도심에 문화시설을 집적시키고, 도시가 낳은 인물과 그들이 남긴 유물의 원형을 되도록 유지·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리옹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1869~1948)가 남긴 1930년대 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는 아직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구도심에서 노면전차(tram)로 20여 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단지는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산·대량공급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주거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관악이' 5층 연립주택, 어린이 공원, 단지 사이사이 커뮤니티(공동체) 공간, 넓은 도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업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던 리옹에는 주변 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넘쳐났고 그들에게 공급할 단독주택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의 단지는 '획기적인' 대안이었다.

인근 공업단지는 쇠락하고 있지만 고풍스러운 디자인, 연립주택 벽화 등은 여전히 리옹을 대표하고 있다. 단지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는 가르니에의 작품 미니어처와 사진, 그의 세계관 및 가치

리옹-공장 노동자 위한 주택단지 역사 박물관으로  
파리-복합문화시설 폼피두 센터 주말 수만명 인파  
프랑크푸르트-중세건축물 활용 '박물관 거리' 조성

관이 적힌 기록물 등이 있어 세계 각국의 건축학도들에게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리옹의 구도심에는 리옹 역사박물관이 있다. 6유로를 내야하는 이 박물관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었다. 30개의 방에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리옹의 역사를 간직한 그림, 조각, 기념품, 문양 등이 전시돼 있다. 15평 내외의 작은 방에 짜임새 있는 전시가 돋보였다.

유럽아시아문화재단의 모델인 파리의 폼피두 센터는 지난 1977년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수만 명의 인파가 찾고 그 주변으로 연계된 광장과 거리카페, 상가 등에도 수십만 명이 운집

하고 있다. 박물관과 갤러리, 도서관 등이 들어선 이 단일 문화시설을 찾아가는 길에는 어린이공원, 광장, 분수대, 거리카페 등 다양한 자원들이 산재돼 있다. 예초 이 센터는 파리의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인 하나의 시설 보부르지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고안됐다. 이 센터의 설립에는 문화에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게 복합문화시설을 공급해 지역을 재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당시 대통령 G.포피두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풍기, 냉난방시설, 상·하수관 등 센터의 모든

설비 배관을 밖에 자리하게 한 뒤 거대한 철골 트러스 속에 순수한 문화공간만을 담은 대담한 이미지와 자유롭게 내부의 변경이 가능한 설계로도 유명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강 주변에는 박물관 거리가 있다. 대규모가 아니라 3~5층 규모의 중세 또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수공예 박물관, 민족 박물관, 독일 영화 박물관, 건축 박물관, 우편 박물관 등이 줄지어 있는 것이다.

작은 박물관들이 모여 거리를 만들고, 암 마인강과 박물관, 구도심 내 점포 및 술집 등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에 있는 콘스트랄레의 원형인 쉬른 콘스트랄레가 있다. 뢰머베르크(Romerberg) 광장과 카이저 대성당(Kaiserdom St. Bartholomaeus) 사이에 있으며, 1986년 2월 28일에 개관했다. 이 미술관은 상설 전시는 없고, 항상 새로운 기획 전시회를 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럽 도시의 구도심에는 상대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 중세·근세의 역사를 간직한 성당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강변에 늘어난 박물관들. 작은 건축물에도 수공예, 민족, 독일영화, 건축, 우편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뜯**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용량(2009년 기준)	설치시 청구요금	월 생산량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주)동성에어텍 ☎062-512-1180 / H.P 011-659-7001